

지중해문명의 종언

- 레판토해전을 중심으로* -

김 응 중**

1. 머리말
2.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과 신성동맹
3. 최후의 갤리선 대첩
4. 결과 없는 승리?
5. 맺음말

1. 머리말

1571년 10월 7일 오전, 레판토 인근해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성동맹과 오스만투르크제국 사이에 벌어진 해전, 소위 말하는 레판토해전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¹⁾ 양측에서 총 400척이 넘는 갤리선과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4시간 동안 벌인 전투는 신성동맹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238)

** 충남대 사학과(서양사) 교수

1) 1571년 10월 7일은 율리우스 달력으로 계산한 것이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1571년 10월 17일이다. 레판토는 이탈리아어 지명표기이고 그리스어 지명표기는 나프팍토스(Nafpaktos)이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레판토에서 약 50해리 떨어진 파트라스만 입구이다.

전투의 규모에 비해 싱겁게 판가름이 난 전투였다. 비잔티움제국의 멸망 이래 육지와 바다에서 패전을 거듭해온 그리스도교 세계로서는 모처럼 맛본 대승이었다. 존망의 위기를 느껴온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의 전기(轉機)였다.

이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한쪽 팔을 잃은 미겔 세르반테스는,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그리고 후세가 결코 목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²⁾ 그러나 후대의 평가는 레판토해전을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계몽사상이 볼테르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전투로 깎아내렸다. 그의 시대에 전쟁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토의 획득이었는데 레판토해전은 이러한 차원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³⁾ 오늘날의 역사가들도 대체로 볼테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16세기 지중해 세계의 구조를 연구한 페르낭 브로델은 1571년 레판토에서의 빛나는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1574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라굴레트와 튀니스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에서의 해전이 최종적으로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승리로 끝났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허망한 승리였던 것은 아니다.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의 승리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났으며,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노잡이로 동원되었던 그리스도교 노예들을 해방시켜 갈리선의 노잡이로 증원하였고, 레판토해전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의 해적들이 지중해 동부지역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 것을 달라진 상황으로 지적한다.⁴⁾

그러나 구조주의 역사가인 페르낭 브로델에게 있어서, 레판토해전은

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Cambridge: Da Capo Press, 2007, p.VII.

3) *ibid.*, p.VII.

4)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Armand Colin, 1985, p.383, p.397; Fernand Braudel, “Lépante: Bilan d'une bataille”, Fernand Braudel, *Autour de La Méditerranée*, Editions de Fallois, 1996, p.291.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브로델은 사건 아래에서 진행되는 ‘국면변동’(conjoncture)에 주목하여, 여기에서 지중해 역사의 큰 흐름을 조망한다. 레판토해전(1571년)과 튀니스해전(1574년)은 모두 지중해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브로델의 도식에 의하면, 경제가 나쁠 때는 외전(外戰)이 일어나고 경제가 좋을 때는 내전(內戰)이 일어난다. 그러나 1575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쟁은 내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국면변동에 의해서 에스파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유럽은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교전쟁 속으로 빠지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동쪽의 숙적인 페르시아와의 전쟁,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이라는 종교전쟁 속으로 빠져든다.

페르낭 브로델의 설명 도식을 따르면, 레판토해전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간에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교제국과 오스만투르크제국이 각각 내륙으로 방향을 돌려 지중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경제적인 국면변동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중해 해전의 승패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사건은 영향을 받는 것이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건의 힘이 그렇게 작은 것일까? 브로델 자신이 열거한 레판토해전의 영향이 그렇게 작은 것이었을까? 그리스도교 세계가 레판토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리스도교 세계와 오스만투르크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지중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지만, 역사의 무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시키지 않았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레판토해전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을까?

2.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과 신성동맹

1453년에 비잔티움제국의 최후의 거점인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오스만투르크제국은 서부유럽으로 진격하여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다. 1454년 신성로마제국 제국의회에서 황제의 특사인 에네아 실비오 피콜로미니는 다음과 같이 당시 유럽인들이 느낀 위기의식을 표현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의 피가 흐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은 통탄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 사실 수백 년이래 기독교세계가 지금보다 더한 치욕을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낯선 땅에서만 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유럽, 우리의 조국, 우리의 집,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심하게 당했기 때문이다.⁵⁾

유럽인들은 새로운 술탄 솔레이만에게서 평화를 기대했으나, 1521년, 새로운 술탄은 유럽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쟁을 선택했다.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는 벨그라드, 헝가리를 점령한 후, 1529년에는 오스트리아 공국의 수도 빈 성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술탄의 군대는 장거리 원정에 지쳐 있었고, 황제 카를 5세의 동생인 페르디난트의 오스트리아는 수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술탄의 군대는 빈 공략을 포기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는 역습에 나설 힘이 없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제후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도울 생각이 없었으며, 황제 카를

5) 볼프강 슈말레, 박용희 옮김, 『유럽의 재발견 -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6, 15쪽. 피콜로미니는 1458년에 교황 피우스 2세가 되었다. 그는 반(反)오스만 국제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실패하자, 술탄 메헤메드 2세에게 편지를 보내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현재와 미래에 정복하는 것을 교황이 인정하는 대가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49).

5세는 프로테스탄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탄은 1532년에 다시 빈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도 시간과 거리라는 강력한 적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페르디난트는 술탄과 휴전조약을 체결했다.⁶⁾

지중해에서도 이슬람 세력이 우세했다.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이 멸망하자 북아프리카로 쫓겨난 무어인들은 해적이 되어 에스파냐 왕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이들 바르바리 지역(Barbary) 해적들은 1516년에 알제를 점령하여 군사기지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서부 지중해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해적 전쟁을 수행했다.⁷⁾ 1544년, 이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군과 함께 나폴리만을 공격하여 7,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고 되팔거나 노예로 판매하였다.⁸⁾ 한편,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황제 카를 5세에게 패배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접근하였다. 프랑스는 술탄의 해군 함정과 약 3만 명의 군인들이 1543~44년 겨울을 프랑스의 지중해 항구인 툴롱에서 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을 경악시켰다.⁹⁾ 툴롱은, 말하자면, “제2의 이스탄불”이 된 것이다.¹⁰⁾ 오스만투르크제국은 1538년에 프레베자에서 그리스도교 갤리선단을 격파한 데 이어 1560년에는 제르바에서 그리스도교 갤리선단을 격파하고 동부 지중해와 중부 지중해의 패권을 확고히 했다.

6)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20~1566”,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2권,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510~516.

7) Angus Konstam, *Lepanto 1571. The Greatest Naval Battle of the Renaissance*, Osprey Publishing, 2003, pp.8~9.

8) Benjamin J. Kaplan, *Divided by Faith. Religious Conflict and the Practice of Toleration in Early Modern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301. 근대 초 기간 동안 100만명이 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슬람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9) Benjamin J. Kaplan, *Divided by Faith*, p.306. 이를 위해 프랑스는 그 기간 동안 도시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10)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20~1566”,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2권, p.531.

막판에 몰린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을 저지해야 했다. 1565년에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몰타섬 공격을 막아낸 것은 최초의 승리였다. 1522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공세에 밀려 로도스섬에서 쫓겨난 후 1530년에 몰타섬에 주둔한 성 요한 기사단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최전선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르바 해전에서 승리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몰타섬을 공격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은 200척에 가까운 함정과 5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하고도 6,000여 명에 불과한 수비군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항상 그러하듯이 몰타섬과 역병은 또 다른 적이었다. 결국 공략 4개월째에 에스파냐에서 원군이 도착하자 오스만투르크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섬으로부터 철수하였다.¹¹⁾

그리스도교 세계로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였다. 볼테르는 “몰타 공략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없다”며 감격했다. 그렇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힘이 약해졌거나 사기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반의 실패”였다. 그들은 에스파냐에서 반란을 일으킨 모리스코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강력했고 여전히 지중해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몰타의 승리로 인해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레판토해전의 승리로 또 다시 확인된다.¹³⁾ 몰타의 승리는 하나의 작은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스만투르크제국에게 있어서 몰타섬 공략 실패는 굴욕이었다. 궁정의 강경파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노렸다. 이러던 차에 1569년에 베네치아의 국영 조선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는 16세기 당시 서유럽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다. 화재 당시 조선소 내부의 도크에는 100여 척의 예비선박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중 25척은

11)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군사연구, 2009, 114쪽.

12)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p.282~283.

13) *ibid.*, p.291. 일부 역사가들은 몰타섬 공략 실패를 기점으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Angus Konstam, *Lepanto 1571*, p.32).

즉각 취역이 가능한 상태였다. 화재소식을 접한 오스만투르크 궁정은 베네치아 해군의 기능과 활동이 상당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베네치아가 입은 화재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스만투르크제국 강경파에게 그것은 새로운 팽창의 기회로 다가왔다.¹⁴⁾

1570년 2월, 새로운 술탄 셀림 2세는 베네치아가 그리스도교 해적들의 키프로스섬 기항을 허락한 것을 비난하며, 키프로스섬의 반환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다.¹⁵⁾ 경악한 베네치아 원로원은 술탄의 요구를 즉각 거절하고, 항전을 결의했다. 그러나 도시국가 베네치아 단독으로 오스만투르크제국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베네치아는 1537년에 결성된 제1차신성동맹이 1538년의 프레베자 해전의 패배와 1540년의 굴욕적인 강화조약으로 이어진 쓰라린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¹⁶⁾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에 열광한 교황 피우스 5세에게 호소했다.

“이교도 투르크인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십자군”이라는 명분 아래 신성동맹 결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황의 주도에도 불구하고 동맹 결성은 난항을 겪었다. 에스파냐와 베네치아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상호 불신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동지중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네치아와 달리 에스파냐는 서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1566년 네덜란드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네덜란드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스파냐는 제1차신성동맹 이후 오스만투르크제국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맺은 베네치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570년에 제3차 종교

14) 전운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15쪽.

15) 셀림 2세는 1566년 아버지 슬레이만을 계승하여 술탄이 되었다. 서양에서, 슬레이만은 “위대한” 술탄으로 불린 반면, 셀림 2세는 “술주정뱅이”로 불렸다. 셋째 아들로써 아버지로부터 혹은 장차 술탄이 될 형으로부터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술에 도피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6) 베네치아는 에게해의 거점 2곳을 양도하고 매년 23만 두카토(당시 베네치아의 연간 무역 이익의 6% 정도)의 연공금을 내는 조건으로 오스만 제국과 단독 강화를 맺었다(전운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13쪽).

전쟁에서 벗어난 프랑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연합함대 총사령관을 누가 맡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1570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동맹 결성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오스만투르크제국은 약 300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키프로스섬에 기병대와 공성용 포를 포함한 약 6만 명의 육군을 상륙시켰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도교 연합함대는 키프로스섬으로 향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키프로스는 함락되었고 잔인한 학살을 면하지 못했다.

베네치아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동맹 결성이 시급했다. 동맹의 전비 부담은 에스파냐가 3/6, 베네치아가 2/6, 그리고 교황청이 나머지 1/6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동맹의 전략목표는 당장 오스만투르크군의 활동이 활발한 동지중해 방면을 중시하되 북아프리카 등 서지중해도 무시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최후의 난제였던 총사령관 인선 문제는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2세의 이복동생인 오스트리아 공돈 후안으로 합의를 보았다. 1571년 5월 20일 ‘신성동맹’이 정식 체결되었고 5월 25일 공포되었다.

3. 최후의 갤리선 대첩

돈 후안은 1569년 에스파냐에서 일어난 모리스코인들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군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돈 후안은 국왕의 이복동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펠리페 2세는 ‘신중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돈 후안은 승리의 영광을 원했다.¹⁷⁾ 형(“Roi prudent”)은 신중했지만 동생(“Prince imprudent”)은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셀림 2세 역시 새로운 군주

17)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p.288~289.

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승리를 원했다. 결과는 전쟁이었다.

1571년 10월 7일 아침, 메시나에서 이동해온 신성동맹 군대와 레판토 항에 집결해 있던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는 레판토 인근 파트라스만 입구에서 결전에 들어갔다. 신성동맹군의 함정은 표준 군선인 갤리선(Gallia sotil) 206척과 대형군선인 갤리어스 6척이었다. 베네치아는 갤리어스 6척 전부와 갤리선 105척을 파견했으며, 에스파냐는 갤리선 55척, 제노바는 갤리선 27척, 교황청은 갤리선 12척, 몰타섬의 성요한 기사단은 갤리선 3척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함정은 갤리선 208척 외에 소형갤리선인 갤리엇(galiot) 56척과 갤리엇보다 더 소형인 푸스타(fusta) 64척이었다.¹⁸⁾ 양측의 갤리선 수는 비슷했으나, 신성동맹은 갤리어스를 가지고 있었고 오스만 제국은 소형 선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은 화력이 월등한 갤리어스선이었다.¹⁹⁾



18) Angus Konstam, *Lepanto 1571*, p.24.

19) 아래 배치도는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이다. 왼쪽이 신성동맹 함대이다. 전면에 배치된 큰 배가 갤리어스이다.

전형적인 갤리선(Gallia sotil)은 길이 41미터, 폭 5미터, 흡수선 1.2미터 배수량 200톤이며, 뱃머리에 큰 포, 좌우에 작은 포를 장착했다. 갤리선의 주동력은 노잡이다. 전통적으로 베네치아의 갤리선은 한 사람이 노 하나를 젓는 방식(*alla senile*)이었다. 배의 양쪽에 각각 3개의 단이 있고 한 개의 뱅크에 24개의 노가 있으니, 총 144개의 노가 있다. 한 개의 갤리선에 144명의 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노젓기 방식으로는 사다리 방식(*alla scaloccio*)이 있다. 양측에 각각 24개의 노가 있고, 노 하나에 4명의 노잡이(자유민 한명과 노예 3명)가 붙는 방식으로, 갤리선 한 척당 총 192명의 노잡이가 동원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덜 효율적이지만 노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레판토해전 당시에는 사다리 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었으며, 베네치아에도 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²⁰⁾ 갤리선에는 노잡이와는 별도로 125명의 군인이 승선했다. 지휘관은 보통 갤리선보다 큰 갤리선(*gallia lanternas*)을 탔다. 가장 큰 배는 갤리어스였다. 이 배는 베네치아가 범선과 에스파냐의 대형갤리선에 대항하기 위해 과거의 상업용 갤리선을 개량하여 만든 비밀무기였다. 길이가 47미터, 폭이 8미터였으며, 9개의 강력한 대포를 장착했고, 250명의 노잡이와 300명의 군인을 태웠다. 갤리어스선이 갤리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잡이 외에도 갤리선의 견인이 필요했다.

전체적인 전력을 추산해보자. 베네치아의 갤리선과 갤리어스선에는 약 4만명의 선원과 노잡이, 28,500명의 군인(베네치아인 5,000명, 교황청 군대 1,500명, 독일인 5,000명, 에스파냐인 8,000명, 이탈리아인 5,000명, 그밖의 모험가들 4,000명) 등 약 68,500명이 타고 있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과 작은 선박들에는 5만 명의 선원과 노잡이,

20) *ibid.*, p.19. 전통적인 방식은 노가 많이 필요했고, 새로운 방식은 노잡이가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숙련된 노잡이를 덜 필요로 했으며, 노를 만드는 목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체로 153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194).

1만 명의 예니체리를 포함한 27,000명의 군인 등 약 77,000명이 타고 있었다. 군인의 수는 비슷했다. 노잡이의 경우, 신성동맹의 노잡이들은 대체로 죄수, 노예, 자유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노잡이들은 대체로 그리스도교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신성동맹의 노잡이들은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할 수 있었으나,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노잡이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할 특별 군인이 필요했다. 무기는 신성동맹측이 월등 우월했다. 깡리어스선은 말할 것도 없고 깡리선의 크기도 큰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착한 포의 수도 많았다. 신성동맹의 군인들은 화승총이나 머스켓 총을 지참했으나,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의 2/3는 총 대신 활, 칼, 도끼, 창 등으로 무장했다.²¹⁾ 신성동맹의 화기가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대 이래 레판토해전 시기까지 전투시의 함대 진형은 육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횡대 진형이 일반적이었다. 신성동맹 함대는 돈 후안과 각국의 기함들이 포진한 중앙부, 베네치아 군선이 주축이 된 좌익, 용병대장 안드레아 도리아가 이끄는 우익, 그리고 후방의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오스만투르크 함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함대를 편성하여 알리 파샤가 위치한 중앙부, 바르바리 해적 마호메트 샬루크가 이끄는 우익, 역시 바르바리 해적 출신 울루지 알리가 이끄는 좌익 그리고 후방의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양 함대의 차이는 오스만투르크제국 측의 군선 수가 약간 많다는 것, 그리고 신성동맹 함대의 각 진영에는 깡리어스가 두 척씩 포진하였다는 것뿐이었다.

배치가 완료된 다음, 양측은 승리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을 가졌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미사를 드리고, 고해를 했다. 불신자들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교황 피우스 5세의 면벌부가 낭독되었다. 무슬림들은 예의 그 기도 의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죽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면벌부 같은 의식이 필요 없었다. 다음에

21) *ibid.*, pp.20~21.

필요한 것은 전투개시 의식이었다. 알리 파샤는 신성동맹군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고, 돈 후안은 이에 응답하여 포를 발사했다. 오전 10시 20분경 전투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돌진해오는 오스만투르크 갤리선을 향해 신성동맹의 갤리어스선이 포를 발사했다.²²⁾ 오후 2시경 울루지 알리의 함대가 패주하고, 4시경 전투가 끝났다.²³⁾

신성동맹의 대승이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 170여 척이 나포되었거나 침몰했고, 3만여 명의 투르크인들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다. 3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날 저녁에 처형되었다. 남은 갤리선은 울루지 알리가 끌고 콘스탄티노플로 도주했을 뿐이다. 30여 척의 푸르타와 갤리엇도 12,000여 명의 선원과 함께 레판토 쪽으로 도주했다. 여기에 더해, 15,000여 명의 그리스도교 노예 노잡이들이 해방되었다. 신성동맹측의 함정 피해는 10척의 갤리선만 침몰했을 정도로 경미했다. 반면에 인명 피해는 적지 않았다. 8,000여 명이 전투 중에 사망했고, 21,000여 명이 부상당했다.²⁴⁾

그날 저녁 폭풍이 불었다. 감사예배(Te Deum)는 바람 소리, 핏빛 파도 소리, 부상자들의 신음 소리에 묻혀버렸다. 계절적으로도 늦었고 그날 기상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의 치료가 시급했기 때문에 울루지 알리를 추적하며 전투를 계속할 수 없었다. 10월 9일, 돈 후안은 북쪽으로 향해할 것을 명령했다. 최종적으로 신성동맹 함대는 10월 23일 코르푸에 도착한 후 해산했다. 베네치아 함대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고, 다른 함대는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향해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성동맹을 승리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전쟁 직전에 레판토에 있는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작전회의에서 신중론을 편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64~265.

23)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전운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30~143쪽.

24) Angus Konstam, *Lepanto 1571*, p.88.

제2장관이었던 페르테브 파샤는 갤리어스선의 존재,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의 불량, 병사들의 경험부족, 신성동맹군인들의 개인화기 우세,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에 있는 그리스도교 노예 노잡이들의 반란 위협 등을 이유로, 술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총사령관인 알리 파샤는 신중론자들의 반대이유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신성동맹의 전력이 상당히 전의는 불타고 있으나 내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만투르크군은 언제나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쟁을 결정했다. 그는 갤리어스선을 무시했으나, 그의 예상은 다음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²⁵⁾ 오스만투르크군이 승리를 자신한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동맹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성동맹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불신하였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분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신성동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성동맹군의 총사령관인 돈 후안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페르낭 브로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승리요인으로 들고 있다: 돈 후안의 리더십; 갤리선의 충각(衝角)을 없애 대포의 효율성을 높인 안드레아 도리아의 전술; 그리스도교 선단의 선두에서 무서운 화력으로 오스만투르크제국 선박들을 파괴한 갤리어스선; 에스파냐 갤리선의 놀라운 배치; 베네치아 갤리선의 화력; 선상 백병전에서 우위를 보인 에스파냐 보병; 기지를 너무 일찍 떠나 피로에 지쳤던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 칼과 활을 사용하는 오스만투르크군의 열등한 무기.²⁶⁾ 특히 갤리어스선의 위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끝난 후 돈 후안은 갤리어스선의 공을 인정하였으며, 오스만투르크군도 갤리어스선의 역할을 인정하고 갤리어스선을 제작하려고

25)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49~250.

26)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p.395; Fernand Braudel, "Lépante: Bilan d'une bataille", p.288. 그러나 이때 처음 충각을 없앤 것은 아니다. 베네치아 해군은 그 전에 이미 충각을 없앴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255).

하였다.²⁷⁾

갤리선은 기원전 2500년부터 지중해 해전의 주역이었다. 갤리선은 노를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잡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잡이를 구하는 문제, 작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태우는 문제 등으로 인해 중세 말부터 서서히 바람을 이용하는 대형범선에 밀려나고 있었다. 갤리선을 이용한 전투는 해전이라기보다는 선상에서 벌어지는 육상전투였지만, 대포를 장착한 대형범선이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퇴장하게 된다. 레판토해전 이후 갤리선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본격적인 해군에 의한 해상전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4. 결과 없는 승리?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레판토해전은 놀라운 승리였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승리가 단명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패전 직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재상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키프로스를 빼앗음으로써 우리는 기독교도들로부터 팔을 잘라냈지만, 그들은 우리 함대를 쳐부숨으로써 우리의 수염을 뽑았을 뿐이다. 뽑힌 수염은 다시 자라나지만 잘린 팔은 다시 자라나지 않는 법이다.²⁸⁾

재상의 말은 억지 변명이 아니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레판토해전에서 귀환한 울루지 알리를 새로운 함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200척의 갤리선을

27)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86, 300.

28) 전운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44쪽.

건조했다.²⁹⁾ 비록 급하게 건조되었고, 레판토해전에서 입은 선원 상실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국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돈 후안은 레판토해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레반트 정벌을 원했으나, 펠리페 2세와 참모들은 레판토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베네치아를 돕는 것이 에스파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여전히 북아프리카였던 것이다. 유럽의 정세는 ‘신중한 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에스파냐의 적이었던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접근했으며, 네덜란드에서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에스파냐는 프랑스가 네덜란드 반란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1572년 5월 알제인들이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을 때 국왕 샤를 9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³⁰⁾ 같은 해 5월 교황 피우스 5세가 죽자 십자군 열기는 급격히 식어버렸다. 1572년 여름, 돈 후안의 연합군은 그리스의 모레아 지방으로 원정을 떠났으나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상황은 레판토해전의 승리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베네치아는 레판토해전으로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에스파냐의 견제만 받았다고 생각했다. 레판토해전의 승리와 모레아 원정으로도 베네치아는 키프로스 và 아드리아해의 주요 거점들을 되찾지 못했다. 오랜 전쟁으로 베네치아의 상업과 산업은 붕괴되고, 재정은 고갈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베네치아는 신성동맹을 포기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평화를 모색했다. 1573년 3월 7일, 프랑스의 닥스 주교의 중재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베네치아는 키프로스를 양도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에게 빼앗긴 달마티아지방의 기지들을 포기했으며, 베네치아가 알바니아에서 정복한 지역을 돌려주었다. 베네치아는 30만 두카토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했고, 투르크인 포로들을 몸값 없이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케팔로니아와

29) Angus Konstam, *Lepanto 1571*, p.89. 책에는 2,000척으로 나와 있으나 200척의 오기가 아닐까?

30)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p.402.

잔테에 지불하는 연공(年貢)을 2,500두카토로 올려야 했다. 또한 베네치아의 함대 규모는 갤리선 60척으로 제한되었다. 레판토해전의 승전국이 평화, 그것도 불확실한 평화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컸다!³¹⁾ 그러나 베네치아에서 평화조약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펠리페 2세 역시 평화조약을 내심 반겼다. 펠리페에게는 네덜란드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분노하고 파문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으나, 당시 유럽의 군주들에게 파문은 익숙한 것이었다.³²⁾

베네치아가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무렵, 펠리페 2세 역시 지중해정책을 포기하고 북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펠리페 2세는 돈 후안에게 튀니스 정벌을 명령했다. 1573년, 돈 후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튀니스를 점령했다. 마드리드에서는 도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돈 후안은 이 명령을 받지 못했다. 교황으로부터 국가건설을 약속받았고, 왕이 되고 싶었던 돈 후안은 도시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복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돈 후안의 군대는 합시드 왕국의 작은 부분만 점령했을 뿐이었다. 그 광대한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펠리페 2세의 주된 관심지역은 부유한 네덜란드였기 때문이다. 펠리페 2세는 동생을 이탈리아로 파견하여 프랑스를 견제하고, 네덜란드로 가는 통행로를 강화하도록 했다.³³⁾

1574년 7월 11일, 울루지 알리가 지휘하는 오스만투르크 함대가 튀니스에 나타났다. 병력은 갤리선 230척, 수십 척의 소형 선박, 4만 명의 선원이었다. 이탈리아에 가 있던 돈 후안은 이 소식을 듣고 튀니스로 내려 가려했으나, 기상이 나빴고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튀니스로 갈 수 없었다. 울루지 알리는 어렵지 않게 튀니스를 되찾았다. 튀니스의

31) *ibid.*, p.416.

3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312~313.

33) *ibid.*, p.424.

주민들도 오스만투르크 군대를 지원했다.³⁴⁾ 돈 후안의 튀니스 정복 역시 레판토해전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1574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튀니스를 탈환한 이후 바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 1574년 이후 에스파냐의 관심은 유럽대륙으로 옮겨갔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관심은 페르시아 전선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1577년 에스파냐는 오스만투르크제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했다. 두 강대국은 이제 더 이상 지중해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았다. 해군이 철수한 빈 공간은 이제 해적의 차지가 된다.³⁵⁾

1571년 레판토해전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세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도 아니고, 1574년 튀니스 탈환 역시 두 세력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판토해전에서 튀니스 탈환까지의 해전을 각각 별개의 해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 블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페르낭 브로델은 이 거대한 역사적 블록의 의미를 “16세기의 거대한 해상 전투의 종식”에서 찾고 있다.³⁶⁾ 이에 대해, 앤드류 헤스는 브로델의 해석 역시 전통적인 유럽중심주의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1571년 레판토해전이 아니라 1574년 튀니스 탈환의 의미를 강조한다. 지중해에서 벌어진 장기적인 해전에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브로델의 평가 이상으로,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⁷⁾

그러나,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16세기에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상 팽창은 거침이 없었다.

34) *ibid.*, p.427.

35)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291.

36) *ibid.*, p.291.

37) Andrew C. Hess, “The Battle of Lepanto and its Place in Mediterranean History”, *Past and Present*, 11월, 1972, pp.64~71;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66~1617”,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3권,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352~355.

오스만투르크제국은 1565년 몰타섬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레판토해전 당시에도 그들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적어도 그들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판토해전 승리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그리스도교 세계의 공포와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었다. 헤스 역시 이점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³⁸⁾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우선 이러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결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여기에서 반(反)사실적 가정을 해보는 것이 전혀 비역사적이지는 않다. 신성동맹이 레판토해전에서 패배했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몰타섬 공략 실패의 굴욕을 만회하려 했던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레판토해전에서 승리할 경우 계속 베네치아까지 공격할 계획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⁹⁾ 따라서,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진출을 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은 결과였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1574년에 튀니스를 상실함으로써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오랜 전쟁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지만, 세기 초에 비해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수염’은 다시 자라났지만, 오스만제국의 해상 전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레판토해전에서 입은 인적 손실은, 페르낭 브로델이 지적한 대로,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강대국이 휴전조약을 맺고, 지중해를 떠나 각각 유럽대륙과 페르시아 문제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강대국의 세력이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가져다 준 중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⁴⁰⁾

38) Andrew C. Hess, “The Battle of Lepanto and its Place in Mediterranean History”, p.71.

39) Angus Konstam, *Lepanto 1571*, p.31.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2.

40)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46쪽.

5. 맺음말

페르낭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그리스도교 세계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준 승리였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부정하는 역사가는 없다. 페르낭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손실이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군력을 약화시켰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역사를 ‘구조’와 ‘사건’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사건’을 그림자나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16세기의 지중해는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는 무관하게 ‘구조’와 ‘국면변동’(콩중튀르)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의 은의 유입이라는 국면변동에 의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문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브로델의 도식에 의하면, 지중해문명의 종언은 사건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구조주의 역사가는 사건을 외면한다. 그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 사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찾는다. 브로델이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아니라 몰타해전의 승리에서부터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심리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사건의 힘을 축소하는 동시에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몰타해전의 승리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브로델이, 시간을 더 소급해 올라가, 에스파냐가 1492년에 그라나다왕국을 정복한 후 북아프리카 정복을 포기하고 이탈리아로 선회한 것을 놓고 하나의 “비극”이라거나 에스파냐의 “역사적 사명”과 “지리적 사명”의 포기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중심주의적인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⁴¹⁾ 당시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였고 아프리카

41)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1, p.153, tome 2, p.430.

북부는 이슬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에스파냐가 과거 로마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정복에 나섰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지중해는 에스파냐와 베네치아와 오스만투르크제국이 각축을 벌이던 바다였으며, 그러한 대립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쟁이 바로 레판토해전이었다. 그 레판토해전에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승리함으로써 지중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중해에 평화가 찾아왔다. 에스파냐가 네덜란드로 국력을 집중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페르시아로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지중해의 평화 덕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레판토해전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영향을 준, ‘구조화’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레판토해전은 유럽의 무게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5. 29,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레판토해전, 신성동맹, 오스만제국, 갤리선, 갤리어스선, 돈 후안, 페르낭 브로델

<ABSTRACT>

The End of the Mediterranean Civilization - Focusing on the Battle of Lepanto -

Kim, Eung-jong

The Battle of Lepanto which took place in the Gulf of Patras near Lepanto in the morning of the 7th October 1571 between the Christian Saint League and the Ottoman empire was a historical event. The battle in which more than 400 galleys and 100,000 men fought for 4 hours was finished by the overwhelming victory of the Saint League. This was a great victory for the Christian world after the long series of defeats in the land as well as in the sea. It can be freed from the long terror and inferiority vis-a-vis the Ottoman empire.

Who is responsible for the victory of the Saint League? It is undeniable that Don John, the commander in chief, contributed to forming a unified force, the Saint League, which was inherently divided and hostile against each other. And, among others, the superiority of the ordnance of the new Galleasses and the Galleys and the individual weapons such as musket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toman Empire which had the pikes and swords. In short, the victory was a victory of the leadership and the modernized arms of the western world.

Most historians agree with Fernand Braudel who considers the Battle of Lepanto to be a historical 'event' which doesn't exert any influence on the historical 'structure'. There are some historians who argue that the Ottoman empire won the final victory by retaking Tunis and La Golette in 1574. But, it cannot be justified to underestimate the historical role of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Lepanto. It enabled the Christian world to be freed from the long inferiority, which led eventually to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editerranean world. The Ottoman empire was recovered rapidly from the loss of the galleys, but the recovery of the skillful manpower needed long time. The balance of power led to the peace. Then, each empire could concentrate its forces on the internal problems. Spain turned to the north, while the Ottoman empire turned to the east, leaving the Mediterranean sea vacant. The Atlantic Ocean supplanted the Mediterranean sea as the center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Lepanto did a great part in this historical transition. In this sense, it can be rightly regarded as an event which influenced the historical “structure”.

Key Words : Battle of Lepanto, Saint League, Ottoman Empire, Galley, Galleasse, Don Juan, Fernand Braudel